

# 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디지털 독점 '아씨 두리안', '아련 vs. 냉정' 박주미-김민준, 극과 극 눈빛! 분위기에 치인다! 캐릭터 명대사 포스터 공개!

2023. 6. 29.

- 좌충우돌 온도차 모먼트 포착!
- '온탕→냉탕' 둘 사이에 무슨 일?!
- 기묘한 인연의 서막!
- '소장용+궁금증' 더하는 명대사 퍼레이드!
- 두리안 역( ) 박주미 "좋은 데 태어나 잘 살고 있어?"
- 단치감 역( ) 김민준 "나 알아요?" 철벽 눈빛!
- 쿠팡플레이 '아씨 두리안'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 절찬 공개!



쿠팡플레이 '아씨 두리안' 상단부터 박주미 김민준. (사진제공=바른손스튜디오, 하이그라운드)

토일드라마 '아씨 두리안'을 디지털 독점 제공 중인 쿠팡플레이가 캐릭터 명대사 포스터를 연속 공개해 본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자

아낸다.

지난 24일부터 쿠팡플레이에서 절찬 공개 중인 '아씨 두리안'은 '히트메이커' 피비(Phoebe, 임성한) 작가가 최초로 선보이는 판타지 멜로물로 월식이 일어난 어느 밤 정체 모를 두 여인이 단씨 집안 별장에 나타난 후 시대를 초월해 얽히고설킨 그들의 기묘한 운명을 그린다.

쿠팡플레이가 배우 유정후와 이다연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인 캐릭터 명대사 포스터에는 배우 박주미와 김민준의 변신이 담겨 있다.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에는 기묘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이끌려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 두리안(박주미 분)과 재벌가 둘째 아들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단치감(김민준 분)의 극명한 온도 차가 담겼다. 단치감은 지금까지 마주친 적 없다고 느끼는 여인 두리안을 만나게 되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건들과 마주할 예정이다.

먼저 배우 박주미의 포스터에는 2회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돌쇠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넋두리하듯 슬픔과 간절함을 쏟아낸 대사인 '좋은 데 태어나 잘 살고 있어?'라는 문구가 담겼다.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슬픔이 박주미의 깊고 그윽한 눈빛을 통해 아련하게 표현됐다.

박주미가 극 중에서 맡은 신비로운 여인 두리안은 미모부터 성품까지 재색을 두루 겸비한 인물이다. 기이한 월식이 일어나던 밤 머느리 김소저(이다연 분)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 캐릭터로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냉철한 캐릭터다. 그런 그가 가슴에 깊게 쌓인 아픔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슬픔을 눈빛으로만 삭히고 있어 스토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.

배우 김민준은 캐릭터 명대사 포스터 속에서 애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박주미와 대비되는 평온한 모습이다. 시크함과 담백함이 묻어나오는 차가운 눈빛을 한 채 '나 알아요'라는 대사가 적혀 있어 두 사람이 어떠한 인연으로 얽히게 됐는지 미스터리함을 자아내며 긴장감을 선사한다.

김민준이 극 중에서 맡은 단치감은 카리스마 회장 백도이(최명길 분)의 둘째 아들로 가문을 이을 후계자이자 이은성(한다감 분)의 다정다감한 남편으로 매사에 완벽한 남자다. 거대한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두리안과 단치감이 과연 서로를 향한 운명과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캐릭터 플레이를 기대하게 만든다.

캐릭터 명대사 포스터들을 통해 인물들의 애뜻한 사연들이 예고되면서 연일 극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키고 있는 토일드라마 '아씨 두리안'은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.





## INFORMATION

제목	아씨 두리안
연출	신우철, 정여진
작가	피비(Phoebe, 임성한)
출연	박주미, 최명길, 김민준, 한다감, 전노민, 윤해영, 지영산 등
스트리밍	쿠팡플레이
제작	바른손스튜디오, 하이그라운드
공개	6월 24일 첫 방송 매주 2화씩 공개 (총 16화)



쿠팡플레이는 쿠팡 와우회원에게 제공되는 쿠팡의 OTT (over-the-top) 서비스입니다. 오리지널 콘텐츠 및 국내외 TV 시리즈, 영화, 스포츠 중계, 키즈/교육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쿠팡플레이는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로서, 보다 풍요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합니다. 더 많은 소식은 공식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쿠팡플레이 [인스타그램](#) / [유튜브](#))

취재 문의 [media@coupang.com](mailto:media@coupang.com)